



경기도 평택항을 국제적 물류항만으로 육성

선석수를 오는 2010년까지 40개로 확충키로

경기도는 주한미군 기지 건설과 더불어 528만 평 규모의 자족신도시가 건설되는 평택시가 환황해권 국제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평택항을 대폭 확충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현재 12개에 불과한 선석수를 오는 2010년까지 40개, 2020년까지 74개로 확대해 국제적 물류항만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앞으로 신설되는 선석은 컨테이너 6개, 자동차 4개, 목재·시멘트·양곡·잡화 각 2개 등 모두 28개로 이 가운데 3만t급 대형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컨테이너 부두 3기를 지난 1일 착공했다. 또 포승면 만호리 내항 1단계 준설투기장 48만평에 2009년까지 모두 820억원을 들여 임시야적장(11만5000평), 복합물류운송단지(13만2000평), 물류시설(13만5000평), 지원시설(2만6000평) 등을 갖춘 항만배후단지도 조성한다.

이와 함께 세관과 식물검역소, 출입국관리사무소, 해운·항만 물류업체, 금융기관, 병원, 회의장, 편의시설 등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하 1층, 지상 15층, 연면적 1만2590㎡ 규모의 마린센터도 2008년 말 완공키로 했다.

특히 평택항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포승면 서해안고속도로에서 국도 38호선까지 길이 3.06km, 폭 21.9m의 평택항 나들목 도로를 조만간 착공할 예정이다.

또 평택항~안중~평택역을 연결하는 27km의 평택항 산업철도와 수인선 야목~안중~장항선(충남 당진·예산)을 연결하는 75.5km의 서해선 철도건설을 정부에 요청키로 했다. 도는 이와는

별도로 평택항을 중심으로 인근 화성과 충남 서산·당진·아산을 아우르는 아산만권 2061만평을 '황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조기에 지정하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예정지는 경기도 평택(포승지구)·화성(향남지구) 일대 793만여평과 충남 서산(지곡지구)·당진(송악·석문지구)·아산(인주지구) 일대 1267만여평이다.

해양부 도선사 전형시험 관리지침 마련

해양수산부는 9월29일 도선수습생 및 도선사 전형시험 관리 지침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해양부가 도선수습생 및 도선사 전형시험 관리 실태를 조사해 문제점을 발굴, 개선한 사항을 지침으로 만든 것으로 내년 도선사 전형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주요내용은 논술식으로 치러지는 도선수습생 전형 필기시험 출제문제의 공개로 시험문제에 대한 적정성 검증 및 시험품질의 향상을 촉진해 유능한 도선사를 확보토록 했다.

또 각종 부정행위 유형과 방지대책, 비상시 상황별 대책 등을 마련해 국가자격시험 공정성 확보토록 했다.

도선수습생 및 도선사 시험은 매년 1회씩 치러지며 올해 도선사시험은 지난 2월에,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은 지난 7월에 치러진 바 있으며, 138명이 응시해 13명을 선발했다.

현재 도선사는 전국 주요 항만에서 224명(부산 40명, 인천 52명, 여수 34명, 마산 14명, 울산 27명, 동해 4명, 군산 7명, 목포 3명, 포항 8명, 대산 18명, 평택 17명)이 도선업무를 수행하고 있다.